

<2011년 7월 13일 수요일말씀>

먼저 할 일을 절대 먼저 하여라

본 문 마태복음 6장 33-34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행통하는 방법과 쉽게 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일과 자기 영혼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육을 위한 것은 나중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시대적으로 하신 말씀으로서 수백 번, 수천 번씩 말씀하시며 그 이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일이 행통합니다. 하늘에 속한 일은 영에 속한 그 일 먼저 하고, 땅에 속한 일은 육에 속한 그 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하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일이 안 해지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지 않으니 때가 지나가서 할 수 없게 됩니다. 일은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일이 빨리 되지 않고 늦게 되고,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고로 모두 지난날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할 일이 있으니 ‘세상 그 무엇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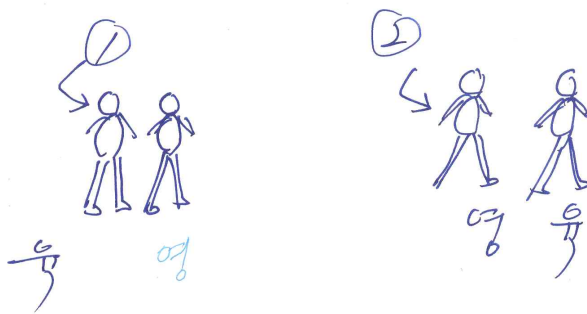
다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와 선을 구하고 사는 것이 인생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과 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구하여라. 먼저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구하여라. 그래야 인간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 영혼이 지옥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육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형통한다.” 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서, 인간으로서 절대 해야 될 삶의 일입니다. 이를 삶에서 제일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쉽고 어떤 일이든지 잘되고 형통하여 영과 육이 잘됩니다. 이는 마치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어떤 일보다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 할 일이듯, 인생이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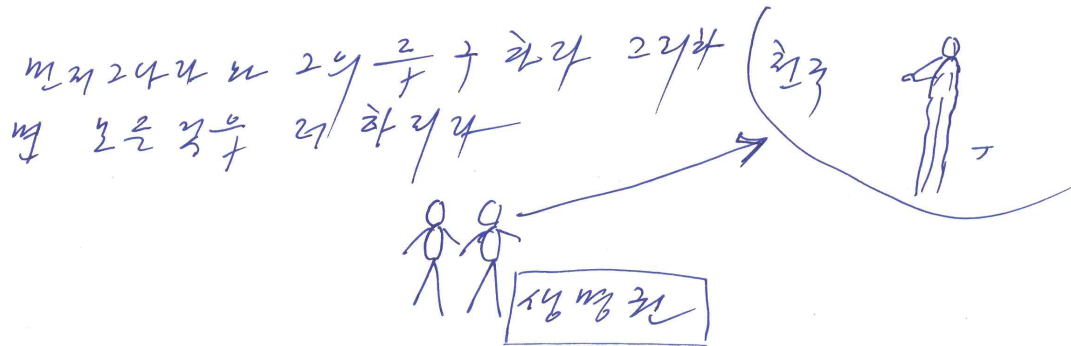
① 표현



<자막과 설명> 하늘에 속한 일은 영에 속한 그 일 먼저 하고, 땅에 속한 일은 육에 속한 그 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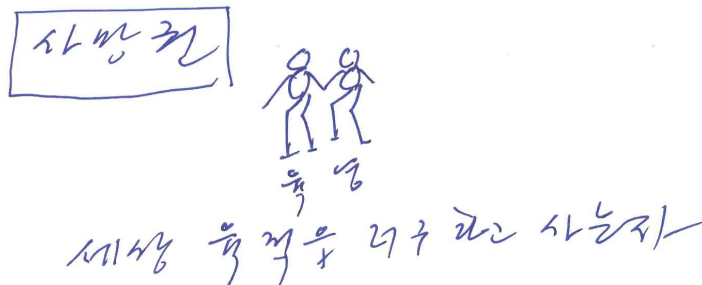
- ② 영적인 것을 더 구하고 사는 자들은 생명권에 거하다가 하늘나라를 얻게 되는 모습



<밑에 자막> 영적인 것을 더 구하고 사는 자

<자막과 설명> 영적인 것을 더 구하고 사는 자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그 육과 영이 생명권에 거하다가 천국까지 얻게 됩니다.

- ③ 육적인 것을 더 구하고 사는 자들은 점점 사망으로 가는 모습



<밑에 자막> 육적인 것을 더 구하고 사는 자

<자막과 설명> 육적인 것을 더 구하고 사는 자들은 그 육과 영이 점점 사망권으로 가게 됩니다.

- ④ 한국 삼풍백화점, 미국 무역센터 건물 무너질 때 사람들이 속히 빠져나오는 모습 / 이와 같이 영과 육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먼저 빠져나오는 모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막과 설명> 건물이 무너지면 그 어떤 일보다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일이 먼저 할 일입니다. / 이와 같이 자기 영을 위한 일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최우선으로 먼저 할 일입니다.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기는 하고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일들에 확실히 전념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시대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쯤은 합니다. 80%, 90%는 합니다. 그러나 100% 하지는 못합니다.

100% 온전히 먼저 하나님과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온전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모두 각자 어느 정도나 먼저 할 일을 하는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고로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고칠 것을 고쳐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글씨를 쓸 때 정성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 정자체로 한 자, 한 자 반복하며 쓰듯이 생활도 심혈을 기울여 하지 않으면 모순이 안 고쳐집니다. 가인 성격, 악의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매일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할 때 하나하나 온전하게 확실하게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선생도 그같이 하여 고쳤습니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항상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노력하고 발전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인생 보람 있습니다.

선생이 글을 써서 작품으로 남기려고 글씨 몇 자를 잘 쓰려고 최대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몇 자를 500번 이상 써 보니까 그제야 ‘어느 정도 멋있다. 구조가 맞다. 이제 작품이 되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글 작품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 우리들의 행함도 그러합니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를 수백 번 반복해서 해 봐야 생활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인생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이 작품이 될 정도로 자기 잠재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려면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됩니다. 인생을 막살면 삶이 막됩니다.

글씨도 막 쓰면 막글씨가 됩니다. 지금 선생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글씨를 막 쓰니 지금도 막글씨가 써지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

을 들어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야 좋은 글씨가 나옵니다. 글씨도 이러한 데 하물며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하나 반복하여 행함으로 생활의 작품,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사 중의 한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서 500명에게 외쳤는데 한 명도 안 왔답니다. 힘이 빠져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500명 중의 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인생 끝났구나.’ 하고 죽으려 했는데, 당신이 전하는 전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와서 말씀을 들어 보세요.” 했답니다.

전도할 때도 전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전도가 됩니다. 한국과 섬리사 각 나라 모두 전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외쳐야 됩니다. 전도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듯 사망으로 가는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온전하게 확실하게 구하며 행해야 됩니다.

온전한 삶을 살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매일 매시간 주님과 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모두 생활 속에서 자기 모순을 하나하나 고치고 부활되어 사망의 삶, 미완성의 삶을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 갑시다. 먼저는 공적 시간인 새벽기도 시간, 주일예배 시간, 수요일예배 시간, 성령집회 시간, 전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공적 시간을 못 지키고 안 지키는 자들은 평소에 자기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안 지키고 살기에 하늘의 공적 시간도 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2>

<자막> 자꾸 노력하고 발전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인생 보람 있

다.

- ① 글씨 한 자를 심혈을 기울여 쓰는 모습 / ‘자연성전’ 글씨 작품 / 이와 같이 자꾸 노력하고 행하여 마음 체질, 육 체질 변화시키는 모습

<자막과 설명> 글씨 한 자도 심혈을 기울여 써야 제대로 써집니다. 한 글자를 500번 이상 써 보면 다음부터는 그 글자가 잘 써지고 글씨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 자기 체질도, 마음도, 생각도 자꾸 목적을 두고 반복하여 행해야 좋게 고쳐져 인생 작품이 됩니다.

- ② 운동장 뛰는 것, GYM에서 한 동작을 수천 번씩 하는 것, 새벽기도, 전도, 설교, 부흥강사 각종 집회, 설교자 설교, 선생님이 과거에 사람들 훈련시키시는 것 (대둔산 등) -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자막과 설명>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려면 수백 번, 수천 번씩 자꾸 해 봐야 점점 체질이 변화되면서 자기 재능과 잠재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 ③ 시계를 보고 정확히 시간 맞추는 것부터 하는 모습

새벽기도, 주일 수요예배, 성령집회 시간 (처음에는 정확한 시간에 오다가 점점 10~30분 미리 와서 준비하는 모습)

그러다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강의 훈련도 하고, 강의도 하는 모습

<자막> 하나하나 반복하여 고쳐 나가면서 체질을 변화시키고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 봐요.

사람이 마음먹고 원하고 소원하고 정말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실천이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 먼저 할 일이란, 몸에 배어 버린 체질과 습관과 버릇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먼저 육에 속한 체질, 습관, 버릇들을 하나하나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모두 성령집회 말씀을 통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 게으른 자는 자꾸 부지런하게 행해 버릇하면서 부지런하게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 느린 자는 자꾸 빠르게 행해 버릇하면서 빠르게 행하는 체질로 개선해야 됩니다.

- 음식을 짜게 먹는 자가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을 먹고 싱겁게 먹으려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럿이 있을 때 싱겁게 먹더라도 입이 심심해서 못 참고 집에 돌아가서 소금을 먹고 간장을 마십니다. 체질대로 되니 못 참고 짠 것을 먹는 것입니다.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겠다고 약속하고 회개를 깊이 해도 또 짜게 먹습니다.

- 하루에 7시간씩 자던 자는 새벽 1시, 2시, 3시에 안 일어나집니다. 예수님이 깨워 주셔도 어느새 또 잠이 들어 버립니다. 3시간, 4시간 자는 것이 체질이 된 자는 예수님이 안 깨워 주셔도 시간이 되면 별떡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 체질 때문에 못 한다.” 라고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계셨을 때 극히 힘들어도 육의 몸으로 신의 체질이 되어 행하며 사셨습니다. 3년의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셨지만 2000년 신약역사가 펼쳐지도록 행하고 가셨습니다. 3년 동안 말씀하신 것을 2000년 동안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2000년 신약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더 차원 높여 보면 3년 동안 전하신 말씀이 1000년 성약역사의 근본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행하심을 보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모두 주님을 본받아 신의 체질로 만들고 살면 현실에서 미래의 일까지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신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상3>

- ① 질문 : “예수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고 싶고 마음먹고 소원하는데도 마음대로 실천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대답

<자막과 말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 된다.

질문 :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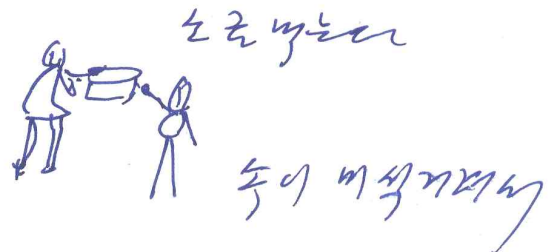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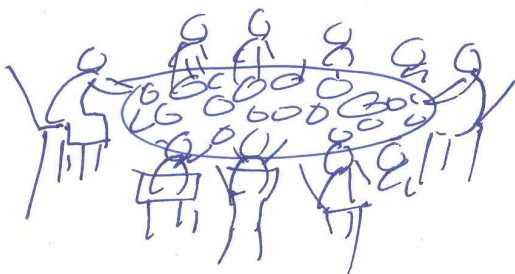
예수님 대답

<자막과 말씀> 몸과 마음에 배어 버린 욕에 속한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자막> 몸 체질, 마음 체질 개선이다.

- ②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이 어느 날 싱겁게 먹었다.

기어이 집에 와서 소금을 먹는다.



<자막과 설명> 음식을 짜게 먹는 자가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럿이 있을 때 싱겁게 먹더라도 입이 심심하고 속이 매스꺼워서 참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소금을 먹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자던 사람 / 주님이 새벽 2시에 급하다고 깨우셔도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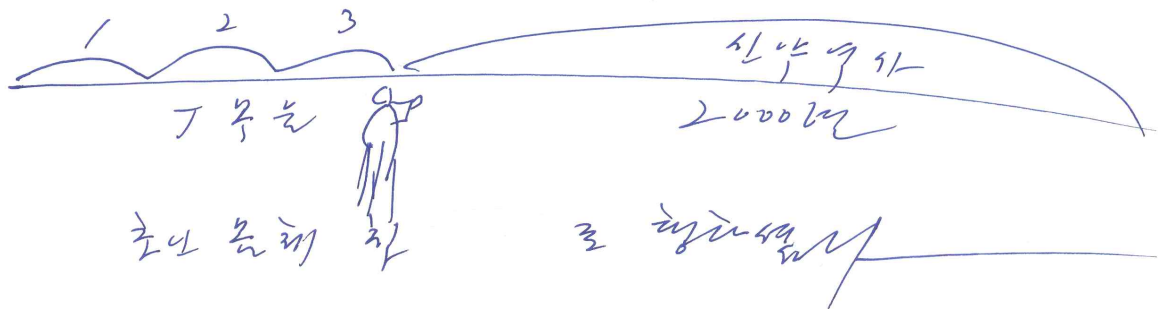
<자막과 설명> 하루에 7시간씩 자던 사람은 주님이 새벽 2시에 급하다고 깨우셔도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잡니다. 체질 때문입니다.

하루에 3~4시간 자던 사람 / 주님이 깨우지 않으셔도 새벽에 벌떡 일어난다.

<자막과 설명> 잠을 조금 자도록 체질을 만든 사람은 주님이 깨우지 않으셔도 새벽에 혼자서 잘 일어납니다. 제시간에 시계처럼 활동합니다. 체질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③ 예수님 쉼 없이 복음 전하시는 모습 (영화 영상)

그리고 이어서 도표



<자막과 설명>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적 체질로 만들어 3년 동안 쉼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 (도표로 전환) 그로 인하여 2000년 동안 신약 복음 역사를 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육의 몸을 가지고 초인의 체질로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체질을 개선해야 마음먹은 대로 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먹고 주님과 약속하고 기도해도 잘 안 행해집니다. 그러니 자꾸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 늘 걸어 다니기만 하고 뛰지는 않던 체질의 사람이 장거리달리기 대회를 한다니까 자기도 자신 있다고 하며 뛰었습니다. 옆에서 어린 사람들이 뛰는 것을 보고 자기는 연륜이 있으니 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운동장 몇 바퀴는 돕니다. 그러나 10바퀴, 20바퀴는 육의 체질이 안 되어서 못 뛹니다. 아무리 마음먹고 뛸다 해도 못 뛹니다. 아무리 청중이 그 사람만을 위해 응원해 줘도 못 뛹니다. 몸을 장거리 뛰는 체질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응원을 안 해 줘도 평소에 장거리를 뛰는 체질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뛰고 또 뛰어도 잘 뛹니다.

체질이 안 된 자는 아무리 예수님이 “너도 저들처럼 뛰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약속하셔도 못 뛵니다. 아마 빨리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입니다. ★ 마음도 몸도 체질을 만들어야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자기 체질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육신 체질 개선을 안 하여 마음, 정신, 생각, 성격까지 그같이 습관이 들고 버릇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하겠다며 결심해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육 체질, 마음 체질을 좋은 체질로 만들지 못하고 성격을 개조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합니다.

먼저 육의 체질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마음 체질을 고치고 나쁜 습관과 버릇과 성격을 다 고쳐야 됩니다. 주님 체질과 주님 마음으로 연단하고 습관을 들여야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이 변질되지 않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척척 행해집니다. 믿습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따르는 자들도 다스리고 만물도 주관합니다.

자기 몸을 술 체질로 만들고 담배 체질로 만들면 중독되어 몸이 병들어 자꾸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야 우선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마약이나 흥분제도 자꾸 먹으면 체질이 되어 몸에 해가 되어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술, 담배, 마약, 흥분제를 안 먹을지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되어 몸과 성격과 마음이 체질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고치면 영혼이 병들어 결국 사망으로 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술 체질, 담배 체질로 만들지 않고 아예 술과 담배를 쳐다보지도 않는 체질로 만든 자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기쁨이고 천국입니다.

이성 체질, 음란 체질, 컴퓨터 오락 체질, 먹고 즐기는 체질, 깡패 체질, 싸우는 체질, 악평하는 체질, 남 잘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체질, 돈 체질, 욕심 체질,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안 믿고 자유롭게 사는 체

질, 게으른 체질, 느린 체질, 남에게 시키기만 하는 체질, 말을 함부로 하는 체질, 온전히 행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마음과 행동의 체질을 고치지 않고서는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고 그 영과 육이 사망과 영원한 흑암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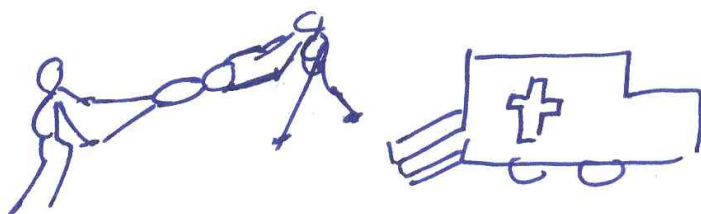
체질과 마음이 굳어진 자는 진정 죄송하다고 하며 회개해도 쉽게 안 고쳐집니다. 각종 죄를 짓고 힘들게 회개만 하지 말고, 그러느니 자기 몸 체질을 개선하고 마음과 정신 체질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이 10분의 1로 줄고 죄도 별로 안 짓게 됩니다.

주님께 매일 죄송하다고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못 한 자를 위해 대신 회개는 해 줘야 하겠지요. 체질 개선, 습관과 버릇 개선, 마음 개선하여 거듭나야 됩니다. 자꾸 좋은 쪽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선생은 팔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하루에 700번씩 반복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체질이 되어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쉽게 체질이 개선됩니다.

<영상4>

<자막> 체질을 개선해야 마음먹은 대로 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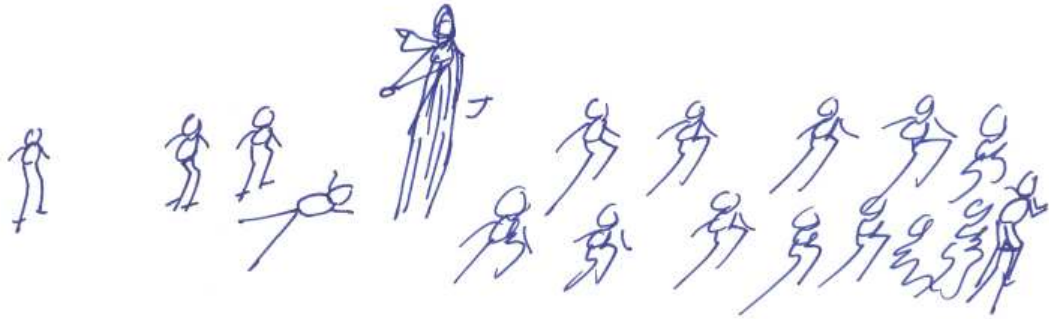
- ① 시민 마라톤 대회 (안 뛰던 사람이 마라톤 대회 참가했다가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



<자막과 설명> 걸던 체질을 뛰는 체질로 바꾸지 않고 장거리를 뛰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바꿔서 행해야 마음먹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섭리인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에 처져 걷는 자들을 보시고 너도 뛰라고 손짓하시는 모습 “너도 저들처럼

뛰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 뛰다가
꼬꾸라지는 모습



<자막과 설명> 주님이 약속하셔도 걸던 자가 갑자기 뛰면 문제가 생
깁니다. 먼저는 마음도 몸도 체질을 만들어야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
로 할 수 있습니다.

<자막> 먼저 몸 체질과 마음 체질을 개선하여라.

체질을 개선하면 자기를 다스리고 남도 다스린다.

② 술 담배 체질, 각종 환각제 체질, 음란물 체질, 컴퓨터 오락 체질,
TV 체질, 강패 체질, 도둑질 체질, 자위행위 체질, 이성 사랑 체
질, 게으른 체질, 하다가 금방 그만두는 체질, 시기 질투 체질, 악
평 체질, 노는 체질, 먹는 체질, 쇼핑 체질, 돈 잘 쓰는 체질, 말을
함부로 하는 체질, 싸우는 체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체질

(모두 하나하나 보여 주면서 그 밑에 각각 자막을 넣는다.)

<자막과 설명> 이같이 체질과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주님께 진정 회
개해도 쉽게 안 고쳐집니다. 회개만 하지 말고 자꾸 좋은 쪽으로 반
복하여 행하며 몸 체질, 마음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자막> 몸 체질, 마음 체질을 개선해야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이
변질되지 않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척척 행해진다. / 여러 번
반복하여 행하면 체질이 개선된다.

설교하는 것과 강의하는 것도 자꾸 해 버릇하면서 체질로 만들어야
마음먹은 대로 잘하게 됩니다. 이제 목회 기간은 3년인데, 자꾸 목회자를

내보내도 안 되니까 전 교인을 생각해서 우선 몸 체질과 마음 체질이 변화되고 개선된 자를 목회지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은 10~20대에 먼저 산에서, 월명동에서 기도생활을 하면서 나의 근성, 육 체질, 마음 체질, 성격을 뒤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존의 내 생각과 몸 체질과 마음 체질을 모두 다 빼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시대 말씀으로 완전히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체질을 빼내니 주님은 시대에 외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 그릇, 행동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을 안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했어도 성격, 행동, 습관, 버릇을 안 고치고 말씀을 들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항상 그 주관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사망권에서 나온 자가 됩니다.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체질이 변화되고 개선된 자가 시대 말씀을 들으면 표가 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생은 오랜 시간 기도하며 나의 체질을 바꾸니 새 역사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초인 체질이 되어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행해야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자꾸 해 버릇해야 못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체질이 되어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체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과 선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제 그 일을 해야만 체질에 맞고 기쁘고 희망이 솟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고통일 것입니다. 이는 몸 체질, 마음 체질, 습관과 버릇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힘들어도 절대 체질을 고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체질로 뒤바뀌 지옥 사망권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약속하고 사랑한다 말은 해도 마음은 원인데 행실이 안 됩니다. 선생같이 모두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을 따라옵니다.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는 자들을 보면, 자기는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행실이 안 되니 포기하게 된다는 20대,

30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꾸 해 버릇하여 체질을 고쳐 몸 체질, 마음 체질, 정신 체질을 주님의 방법으로 개선하세요. 그러면 마음먹은 대로 즉시 됩니다.

선생도 강하게 체질을 개선하고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며 주님 시중들면서 삽니다. 선생이 운동장을 뛸 때 선생을 따라서 30바퀴씩 같이 뛰려면 선생같이 뛰는 체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같이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체질을 만들어야 같이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섭리역사를 뛰고 달리는 것도 그러합니다.

아직 10대인데 벌써부터 실천하지 않는 체질과 습관과 버릇이 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20대가 되면 더 고치기 힘들고, 30대가 되면 포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 훈련하고 자기 체질을 좋게 개선해야 됩니다.

섭리역사는 주님께서 선생부터 먼저 본을 보여 행하도록 시대 말씀을 주시어 몸 체질, 마음 체질, 잘못된 습관과 버릇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고로 새롭게 변화하고 부활하게 하시고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게 하시어 새롭게 거듭난 세계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 섭리역사를 좇게 하셨습니다.

<영상5>

① 해당 영상 제작

<자막과 설명> 선생은 10대 때부터 8km나 되는 학교와 집을 매일 걷고 뛰어다니며 체질을 개선하여 건강 체질로 만들었습니다. / 홀로 두려움과 싸우고 기도하며 기도 체질로 만들었습니다. / 주님은 가장 먼저 나의 몸 체질과 마음 체질을 바꾸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 주시는 모습

<자막과 설명> 나의 체질을 빼내고 마음 그릇, 행동 그릇을 만들어 놓으니, 그제야 주님은 시대에 외칠 말씀을 주셨습니다.

②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힘들어하는 모습

<자막과 설명>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고통일 것입니다. 이는 몸 체질, 마음 체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행함으로 사망권을 벗어나 생명권으로 와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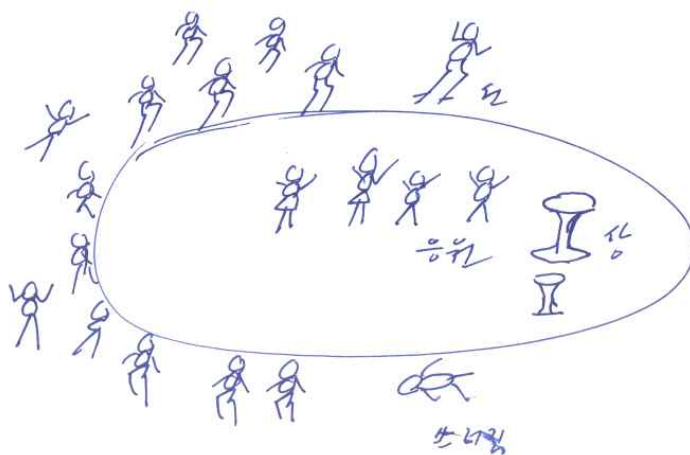
<자막과 설명> 처음에 힘들어도 절대 체질을 고치고 하늘 체질로 뒤바뀌 지옥 사망권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③ 주님 뜻대로 살면서 기뻐하는 자

주님 뜻대로 살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자 (한 화면에 비교)

<자막과 설명>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체질에 맞고 기쁘고 희망이 솟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영원한 희망을 이루며 살지라도 힘듭니다.

④ 선생님 따라 뛰는 모습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마는 모습,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는 모습)



<자막과 설명> 체질을 안 만들고 뛰면 숨 못 쉬어서 쓰러집니다. 가다가 포기합니다. / 체질을 만들어야 나와 같이 희망을 향해 뛰고 달려 시대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자막> 시대 말씀으로 잘못된 버릇과 육적인 몸과 마음의 체질을 고쳐라.

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선생이 사는 고향 마을에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선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저씨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는 순간 눈을 5~6번씩 깜빡거렸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왜요? 왜 제게 눈짓했어요?”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버릇이 되었어. 이제 체질이 되어 별로 신경이 안 쓰여. 내가 하도 눈을 깜빡거리니까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왜 불렀어? 무슨 일 있어? 눈을 깜빡거리면서 불렀잖아.’ 하고 물어봐. 근데 나는 그냥 깜빡거리는 거야.”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주변에서 눈 깜빡거리는 것을 고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결국 죽을 때까지 못 고쳤습니다. 바로 고치면 고쳐졌을 텐데 체질이 되어 버리니 못 고친 것입니다.

육신 체질, 마음 체질이 되어 버리면 그것을 생활 속에 수시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이 육신의 영향을 똑같이 받아서 제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는 몸에 밴 체질을 고치고 마음과 성격이 체질화된 것을 개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생명에 관한 일부터 하게 하십니다. 고로 생활에 해가 되는 일을 모두 피하게 하기 위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부로 단장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도달하도록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선생은 몸의 체질을 개선하고 마음을 개선하여 주님의 시종을 들면서 시대 중심 역사를 30년 동안 지치지 않고 펴 온 것입니다. 모두 못 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몸에 밴 체질을 고치고 마음과 정신의 체질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기 바랍니다.

선생은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체질을 개선하고, 정신과 마음을 개조하여 삽니다. 과거에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며 축구하던 체질을 바로 좁은 데서 운동하는 체질로 바꿨습니다. 이제 체질이 개선되어 좁은 데서도 계속 운동하며 건강을 살핍니다. 그런데 섭리인들은 그 넓은 운동장을 두고 환경 좋아도 안 뛰고 체질 개선을 안 합니다.

교역자들은 모두 본이 되어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여 전체의 이치에 안 맞게 하면 안 됩니다. 합당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영상6>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지금까지도 말했지만 ‘체질을 개선하여 마음먹은 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꼭 지켜 행하여라. 모두 각자 그동안 자기 체질을 많이 개선하고 마음과 정신도 개선하여 섭리역사를 이같이 이루어 왔다.

이제 마지막 차원으로 올라가서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여 끝내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너희 체질과 마음을 더욱 고쳐 개선하기 바란다. 체질을 고쳐야 마지막 차원에 올라 행하여 모든 일들을 매듭짓고 나 예수의 재림을 위해 온전히 단장하고 쉽게 예비할 수 있다.

육신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그 단계에서 애 태우며 머물러 있게 된다. 몸의 체질을 고치는 것은 차를 다른 구조로 고치는 것과 같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체질을 고치는 것은 차를 작동하기 위해 입력한 프로그램을 빼내고 다시 새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체질을 바꾸어 더욱 차원 높여 행함으로 영도 육도 완성시켜 나를 맞기 위해 온전히 예비된 신부들이 되는 것이다.

마치 먼저 체질을 개선하고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같이 하여라. 수영하기 전에 먼저 준비운동을 하듯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꼭 체질 개선을 하여라. 몸 체질을 개선하면 마음 개선이 쉽다. 체질을 개선하고 마음을 개선한 후에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다. 그때부터는 마치 자동 기계처럼 행해진다.

항상 먼저 기도함으로 나와 대화하고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응답받고 행하여라. 먼저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만들어 내가 너를 육으로 삼고 행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범사에 나 예수가 너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 예수가 너희 선생을 통해 ‘좋은 것은 아주 습관화하고 체질화하며, 나쁜 것은 매일 버리라’ 고 가르쳐 주었다. 모두 그리하여라.

운동선수가 되려면 운동을 많이 하여 마음과 몸을 운동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가수가 되려면 노래를 많이 하여 마음과 몸을 노래하는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고 살려면 농사짓는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고기를 잡아먹고 살려면 어부 체질로 만들어서 뱃멀미 안나게 만들고 험한 파도와 풍랑을 이기는 체질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마음도 그같이 만들어야 된다.

행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체질을 만들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불가능 없이 할 수 있다.

나 예수와 동행하고 영원한 생명길을 가면서 영혼을 구하고, 육이 세상에서 뜻있게 보람 있게 희망으로 살려면 너희 선생같이 너희 체질을 내가 원하는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너희 선생같이 만들어라. 또한 너희 선생을 따라서 한 자에게 배우며 개선하여라. ‘체질 개선’ 이 먼저 해야 될 일로서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고 개선하자.

새로 온 생명들과 10대들은 안 된다고 말아라. 또 20대, 30대, 40대들은 힘들다고만 하지 말아라. 독하게 마음먹고 너희 몸과 마음과 성격의 체질을 온전하게 고쳐 행하여라. 그래야 너희 육도 영도 완성되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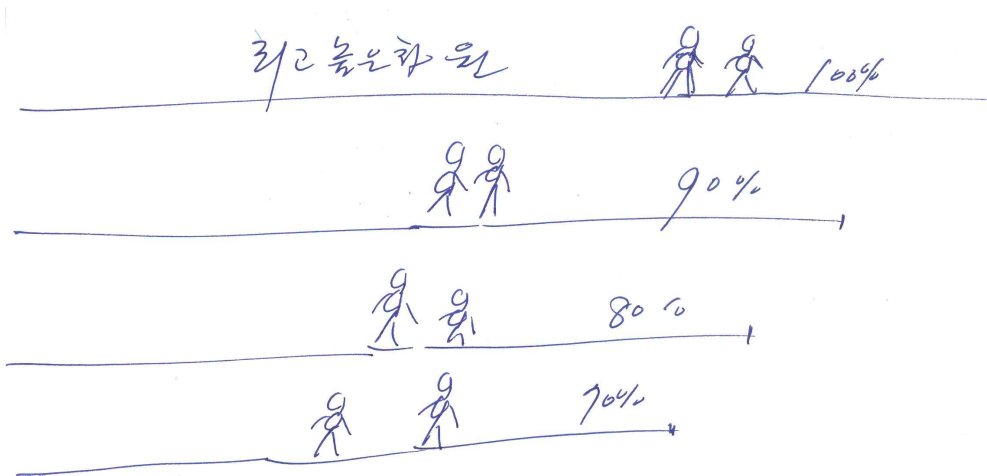
의 신부가 되어 새 시대 섭리사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나의 재림의 대소망을 이루게 된다.

좋은 체질로 만들고 개선하여 나의 일을 즐거움으로 순리로 자동적으로 행하면 보람 있게 살게 된다. 모두 체질을 개선하여 마음먹은 대로 자기 육신이 즉시즉시 행하게 하자.

너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준 주 예수다. 살롬.

<영상7>

① 표현



<자막과 말씀> 체질, 마음, 성격을 모두 고쳐야 마지막 차원에 올라가서 깨끗하게 예비하고 나 예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게 된다.

② 운동선수 - 몸과 마음을 운동 체질로 만드는 모습

가수 - 몸과 마음을 가수 체질로 만드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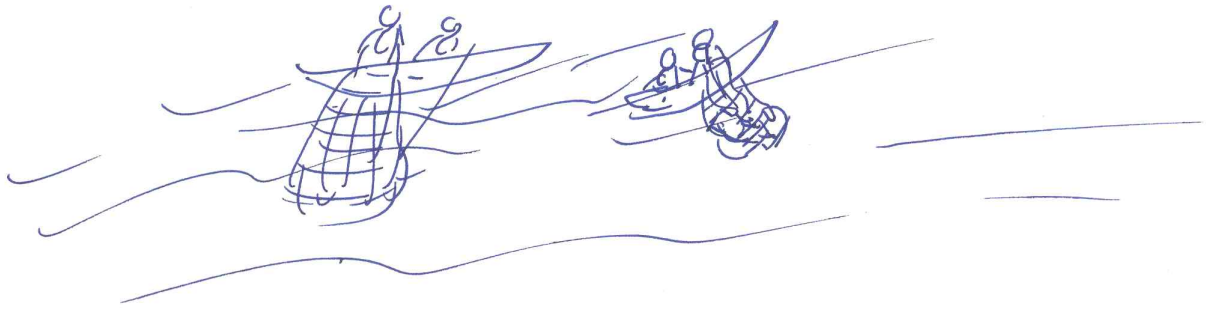
농부 - 몸과 마음을 농부 체질로 만드는 모습

어부 - 몸과 마음을 어부 체질로 만드는 모습

(예를 들어서 어부가 험한 파도와 풍랑 이기면서 만들듯, 각각 어려움을 이기면서 만드는 모습을 표현)

<자막과 말씀> 이같이 행하면서 체질을 만드는 것이다. 체질을 만들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불가능 없이 할 수 있다.

③ 마음먹은 대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



<자막과 말씀> 너희 영혼이 지옥길을 벗어나 천국에 가려면 나 예수
의 마음과 행함의 체질로 만들어라. 그래야 마음먹는 대로 쉽게 행할
수가 있다. (예수님 인사) 샬롬!

<자막> 먼저 할 일을 절대 먼저 하여라. / 먼저는 체질 개선이다.